

#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

10925 정재혁

# 목차

01 현안

02 당사자의 입장

03 나의 견해

04 해결 방안

**방역 당국이 5월 2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등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.**





질병관리청

구분	기존	변경
마스크 착용 의무	실내·외 필수 착용	<b>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화</b> ※ 실내는 필수 착용 지속 - 단, 50인 이상이 참가하는 실외 집회 참석자 또는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·스포츠경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
권고 사항		<b>[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]</b> 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<a href="#">진단검사체계 ▶</a> ② 코로나19 고위험군*인 경우 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*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* 50인 미만 규모의 스포츠경기관람장, 놀이시설(놀이공원 등), 체육시설 등

-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 사망자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.
-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.
- 의무화 해제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다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.
-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.

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,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지만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므로 당분간 실내에서 만큼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한다.